



미 국

유기농 계란·닭고기 인기몰이

사료비 증가와 여러제품들의 난립으로 인하여 제품간 치열한 경쟁에도 미국시장에서는 유기농 계란과 닭고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건강·환경·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제품의 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유기농 닭고기와 계란의 판매시장은 2005년 기준 1억6,100만달러를 기록했다. 현재 유기농 닭고기와 계란의 시장 판매율은 1%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10년후에는 계란의 경우는 40%, 닭고기는 4배 이상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닭고기는 2000~2005년 사이 4배나 급증했지만 공급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높은 가격 프리미엄 효과를 보고 있다.

유기농 닭고기와 계란에 대한 2004년부터 2006년 중순 사이 가격분석을 보면 평균 가격프리미엄은 닭고기가 200%, 계란이 278%로 나타났다.(WP)

스리랑카

양계산업 발전 정부가 적극 지원

스리랑카 Sabaragamuwa지역 의회는 Kegalle와 Ratnapura 지역 두 곳 양계농가들을 대상으로 필요시설과 각종혜택을 지원하여 양계산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두지역은 현재 양계농장이 부족해 계란과 닭고기가 소비량 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계란과 닭고기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가격 또한 상당히 증가한 상태이다.

Sabaragamuwa지역 의회 농림정책 담당 Ranjith Soysa는 저리로 현 양계농장에 모든 병아리 지원과 신규농장 유입을 위해 할부대출을 제공할 방침을 전했다. 이번 조치로 양계산업 발전과 함께 인력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 국

메뚜기가 사료로 가능할까?

중국의 과학자들은 육계사료로 쓰일 단백질원으로써 메뚜기를 연구했다.

이 경우 15%비율로 사료에 첨가하면 사료로 쓰이는데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건조된 메뚜기는 kg당 조단백 654g, 지방 83g, 키틴 87g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미노산의 함량은 어류와 견줄 정도였으며 이외의 다양한 영양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사료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는 Animal Feed Science and Technology 5월호에 실렸다.(WP)

곡물가격상승으로 식품가격 상승

중국 국가통계국은 3일, 식품가격이 작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해 중국 국내 큰 인플레이 압력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웨이브사이트에 실었다고 북경지인 경화시보가 전했다.

금년 1~5월에 식품가격은 6.8%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월비 3.4%상승해 2년 3개월만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가운데 식품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8.3%의 상승을 나타내 4월의 7.1%를 상회했다.

국가통계국 국제센터의 류빙, 마암, 왕금평은 연명으로 발표한 글 '세계적 식품가격 동향과 중국에의 영향에 관한 초보적 판단'에서 이번의 식품가격상승은 세계적인 것으로 주요원인은 세계의 곡물가격이 상승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곡물가격의 상승이 관련식품의 상승을 초래하고 사료가

격의 상승으로 육류나 유제품류의 가격도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의 식량비축은 안전라인상에 있어 중국의 곡물가격 상승은 10%에 멈추어 있어 상승률이 20%를 넘지 않는 한 큰 인플레이 압력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CN)

러시아

일본산과 브라질산 양계산물 공급 제한

러시아 연방 당국은 강화된 수의관리감독 지침에 따라 육류 및 양계산물의 수입 금지조치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일과 브라질산의 살모넬라 등 오염된 양계산물 공급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생산량 중 45톤이 기준미달로 이미 탈락시켰다. 일찍이 러시아 연방 당국은 브라질과 독일의 돼지고기 일부를 국내 반입 금지조치 내린바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들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육류에 대해 금지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www.thepoultrysite.com)

일 본

JA 7~9월 배합사료가격 톤당 1,100엔 인상

JA 전노는 20일, 2007년 7~9월의 배합사료 공급가격을 4~6월기에 비해 전국 전축종 평균 톤당 약 1,100엔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4기 연속 인상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만1,500엔 정도 높다. 원료인 곡물가격이 고가로 한정된 한편 해상운임의 고가기조와 환율의 엔저경향이 반영되었다. 금후 전국배합사료 공급안정기금의 보전으로 농가의 실질부담은 압축될 전망이다. 보전 단가의 결정은 월말쯤 된다.(JA)